

한인 학부과정 Korean Program

편.입학 안내

■ 본교 (Korean Track / 한국어로 수업)에 편.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양식을 교부받아 각 과정에 필요한 자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입학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며 매학기 시작전 수시입학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가을학기(Fall Semester)

매년 9월 2째주 월요일 - 12월 3째 마지막 날

◆ 봄학기(Spring Semester)

매년 1월 2째주 월요일 - 4월 3째 마지막 날

◆ 여름학기(Summer Semester)

매년 5월 - 6월

■ 한국 및 외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캐나다로 출발 전 1차 편.입학원서와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송 또는 팩스로 먼저 보내어 입학허가(개인별 통지)를 받고 외국인 학생에 요구되는 등록금 및 학생의료보험(본교 추천 가능) 등을 완납한 후 본교의 입학허가서로 캐나다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말 문의 가능. 전화 416-493-4577 또는 416-391-5000: Korean Dept.)

■ 구비서류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신앙고백서(1매 이상), 사진 3매(여권크기), 편.입학원서

■ 원서교부 : 한국은 본교 해외학생처장

전화 02-303-9866 또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Canadian Education Centre 100-072 서울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10층 전화 02-757-2444, 또는 본교지정 해외 유명 유학원 및 어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북미의 일반적인 3학기 제도와 학점 이수별 졸업제도로써 전과목(Full Time) 및 일부과목(Part Time)수강이 가능하여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본교가 인정하는 학교 및 학점은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편입생은 최하 3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어와 일부과목의 동시통역으로 수업을 하며 토플(TOEFL)을 요구하지 않으나 개인별 영어시험 후 학교가 요구하는 본교의 영어(ESL)을 필히 수강하여야 합니다. 유학생은 Part Time이 불가하나 Full Time 등록후 해당과정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Part Time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한후 학업진행을 중단한 학생은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본교의 특징과 특전

- 학과 등록 및 편.입학은 매 학기전 언제나 가능합니다.
- 북미 최고의 교육과 양질의 환경을 갖추었으면서도 저렴한 수업료가 미국과 크게 비교되며 또한 생활비가 또한 생활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 현지 외국인 및 한인 홈스테이 등을 추천하여 현지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교수 및 강사진은 헌신적이며 수준높은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다년간 교수 또는 실무경험과 우수한 도서 및 논문, 창작, 발간등을 해 온 각계 교단의 지도적인 인사들과 한국 및 북미의 최고 수준의 음악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장학혜택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학자금융자(OASP)가 가능합니다.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학점취득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문교성 관할 법규에 따라 해당학위를 취득합니다(www.edu.gov.on.ca 참조).
- 신학 및 교회음악과정을 이수한 본교 졸업생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인정하는 Evangelical Association으로부터 목사 및 음악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교는 CABBC(Canadia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그리고 ABAC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ors of Christian Colleges)의 회원 대학이며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와 공동결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에 위치한 유수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북미의 다른 대학원들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가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청정한 자연환경은 물론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Multiculturalism) 정책과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권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세계화되는 선교사역의 훈련지로서 최적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본래 사명의 훈련과정을 쉽게 받으면서도 영어의 훈련은 계속되므로 학업기간동안 다양한 기능분야 및 현대목회에 필요한 수료과정(Diploma Programs)들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